

양돈업계 사람들

정직과 신용을 생명으로  
양축농가에 기계를 보급하고 있는

제일양계기구제작소 **박 호 일** 사장

양축가의 입장에서 좋은 제품만을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일양계기구제작  
소 박호일사장

- 취재 : 이병석 -

“기계를 구입하는 양축농가가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

**정** 직과 신용만으로 20여년간 축산기구를 만  
들어 질 좋은 제품을 양축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제일양계기구 제작소(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15-1) 박호일 사장(56세)은 지난 69년 현재의  
위치에 양계농장을 직접 경영하다 73년부터 양계  
기구를 직접 제작하여 지금까지 양축농가에 공급  
하는 등 양계업계에서는 무척 잘 알려져 있지만  
양돈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지난 83년도에 일본  
고신엔지니어링이란 회사와 축분발효시스템에  
대한 기술제휴를 하면서부터 축분처리기계로 양

돈에 첫발을 디딘 것이 양돈산업과의 인연이라고  
한다.

주로 취급하는 기구가 양계기구이지만 분뇨처  
리기계는 모든 축종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에도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번 판매된 제품은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주  
고 있으며, 특히 기계가 견고하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보급한지 10년이 넘는 발효기계도 아직까  
지 별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현재 제일양계기구제작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일양계기구제작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제일PS발효플랜트시스템(KS-L형), 이 기계는 처리량에 비하여 바닥면적을 적게 차지하므로 대규모처리에는 가장 알맞는 발효처리기계라고 한다.

축분발효처리기계는 전국의 대단위 양돈단지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한 번 판매된 제품은 특별히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구입한 농가에서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외국에서 수입해와 축분발효기를 설치해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던 농장들이 기계를 바꾼면서 이 회사의 기계를 구입한다고 한다.

### 돈분뇨를 동시에 처리할시는 비료의 균일성이 떨어져

‘제일 PS발효플랜트 시스템’이란 축분발효처리기계는 기존의 다른 제품과는 달리 제품 전체를 아연용융도금 처리하였으며, 볼트도 스텐레스 볼트를 사용해 돈분에 의해 발생하는 암모니아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 가격이 비싸서 제품이 그리 많이 팔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양계기구제작소 박호일 사장은 기계를 구입해가는 농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쓰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드는 아연용융도금 처리와 스텐레스

볼트 등의 처리는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타제품에 비해 기계수명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가격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돈분발효처리도중 뇨를 뿌려주면 발효가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비료의 균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예 뇨는 정화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분뇨처리기에 문의해 오는 양돈농가에 솔직히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

“지금은 모든 산업이 세계경쟁 시대입니다. 양돈산업도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양돈농가 스스로 세계적인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박사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현장에 직접 종사하여 국내 양돈산업의 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이 우리 양돈산업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돈분처리를 아무런 문제없이 잘할 수 있는 올바른 기계를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養豚**